

지역 매 아리

김제-안동 재향군인회 한자리에
영호남 화합·친선교류 행사 개최

김제시 재향군인회(회장 박영봉) 및 여성재향군인회 회원 40여명은 지난 4일 안동국제관광재단일원에서 영·호남 재향군인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화합 친선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제21회 영·호남 화합행사를 목적으로 경북안동시 재향군인회(회장 강병도) 초청으로 추진되었으며 양 도시간 재향군인회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우호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였다.

한편 김제시와 안동시는 지난 1998년부터 재향군인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양 도시 간 교차교류형태로 치러지는 영·호남 화합행사는 회원 상견례, 특산품 교환의외에도 관광지, 산업단지 시찰 등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내년에는 김제시 재향군인회가 안동시 재향군인회를 초청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풍지구대, 교통 사망사고 예방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실시

김제경찰서(서장 송승현) 신풍지구대(대장 김명곤)는, 지난 5일 외부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과 주민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노인들을 상대로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가 대부분 무분별한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야간 외출 자제를 비롯하여 교통법규 준수 및 밝은 옷 착용을 홍보했다.

김명곤 대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사고 예방에 주력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 및 운전자 상대 사람이 먼저인 교통 패러다임 홍보를 통해 사고예방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축제’ 글로벌 면모 과시

김제시 대표프로그램 변화 거듭 완성도 강화 관광객 만족도 높아

오감만족 오락축제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지난 5일 김제 대표 관광지 벽골제에서 힘차게 시작한 가운데 그동안 김제지평선축제를 이끌어 온 대표프로그램인 전통농경문화 콘텐츠의 완성도를 강화해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김제지평선축제의 기본 컨셉인 전통농경문화의 정체성과 지역문 화유산을 만나 볼 수 있는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와 풍년기원 입석 줄

다리기, 쌍룡 햇불 퍼레이드는 스무 해를 맞이하는 동안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완성도를 높여왔다.

먼저, 벽골제 제방 축조와 관련된 벽골제를 지키고 풍년과 인간 화합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던 단야 남자를 기리는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는 김제시 부랑면 벽골제에 내려오는 전통 민속놀이에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청룡을 물리치는 연출로 대중성을 가미해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매년 정월대보름날 뽕잎으로 만든 뽕이쭈를 여자와 남자 두 편으로 나누어 여자가 이기면 그해 평년이 든다는 전설의 줄다리기인 평년기원 입석 줄다리기는 한해 농

사를 시작하기 전 대지의 안녕을 고하고 풍년을 염원하는 조상들의 이상이 담긴 민속놀이에 관광객과 함께 줄다리를 하고 제방을 도는 퍼레이드를 가미, 관광객에게 보다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전통 농경문화 콘텐츠를 외국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시켜 왔다. 관광객이 뽑은 만족도 1위 축제답게 올해는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으니 축제장에 방문해 마음껏 즐기고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시아·러시아데이 운영 러시아 연방대사관과 MOU 체결 등 성과 올려

온 가족 웃음 가득한 체험왕국,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지난 5일 김제 대표관광지 벽골제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러시아데이, 아시아데이 등 글로벌 프로그램이 성황을 이루며 글로벌 축제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계문화 알아보기'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6일 아시아데이, 7일 러시아데이를 운영해 큰 성과를 냈다.

한·태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운영된 아시아데이는 태극관광진흥

협회(ATTA) 임원진과 태극 내 여행사 대표 등 20여명이 축제장을 방문, 김제시와 MOU체결로 태극 내 지평선 축제 관광상품 개발을 논의하고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한 한·태간 국제적 우호친선 관계를 증진하기로 했으며, 일본 관광객이 2만3천 일정으로 축제장을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었다.

또한, 러시아 총영사관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후원으로 운영된 러시아데이에는 주한 러시아 재외동포단 재단 대표가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한 러시아 문화를 교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러시아 음식과 러시아 의상체험 등 가장 가까운 유럽 러시아의 문화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축제장을 방문해 글로벌 비수확체험, 도전! 2033 글

로벌 제기차기, 외국인과 함께하는 대동 연날리기 행사등 풍성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만끽하고 돌아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평선축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이에 걸맞게 올해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축제기간 중 태극, 러시아와의 MOU 체결 등의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앞으로 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전통농경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외국인이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글로벌 대동 한마당 축제로 발전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늘로 4일차를 맞고 있는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연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글로벌 이슈메이킹 지평선 쌀강정 한반도 만들기, 글로벌 지평선 쿠키를 래스 등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9일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알릴 홍보대사 위촉

가수 김숙영·임현정·현숙·연주가 유세미씨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가수 김숙영, 임현정, 현숙, 연주가 유세미씨를 김제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지난 5일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에서 위촉패와 꽃다발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김제시 홍보대사는 지평선축제 개막식이 열린 2020년 10월 4일까지 2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지역축제

홍보, 관광활성화와 농특산물 및 시정 홍보 등 김제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또한 이번 위촉대상자들은 모두 김제 출신으로 김제홍보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확정되었다.

가수 김숙영씨는 트로트가수 활동 8년차로 가수활동 및 tv프로그램 mc로 도 활약 중이고, 바이올린연주자 유세

미씨는 국내 외 1,000회 이상 바이올린 연주공연을 한 실력가이며, KBS 열린음악회 등 음악프로그램에도 다수 출연했다.

가수 임현정씨는 트로트 가수로 17년간 활동했고, 전국노래자랑 등 각종 공연에도 참여해 인지도가 높으며, 가수 현숙씨는 39년간 트로트가수로 활동했고, 각종 공중파 가수상을 수상한 인기 가수이다.

양운업 문화홍보축제실장은 "김제시 홍보대사로서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겠다"며 "다양한 재능기부와 시의 발전상을 알리는데 적극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완주군 청년키움식당 5차 참가팀으로 '고치소팀'과 '자리쿠' 팀 2개팀이 참여해 10월 한달간 운영을 시작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청년키움식당 이달엔 일식”

완주, 5차 참가팀 본격 운영 덮밥·튀김우동 등 판매

메뉴 한 그릇에 청년들의 열정을 담은 완주군 청년키움식당 5차 참가팀이 운영을 시작했다.

완주군은 완주군 청년키움식당 5차 참가팀으로 '고치소팀'과 '자리쿠' 팀 2개팀이 참여해 10월 한달간 운영을 시작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고치소팀은 '손님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한다'는 타이틀로 주력메뉴는 새우튀김덮밥, 차슈덮밥, 닭고기덮밥이며, 자리쿠팀은 '앉아서 먹는 즐거움'의 의미로 주 메뉴는 새우튀김우동, 닭고기야끼우동이다.

각 메뉴는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청년들의 희망이 만난 메뉴로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5차 참가팀 고치소, 자리쿠팀의 참가자들은 미래의 셰프를 꿈꾸는 청년들로, 열정으로 팔팔 뭉쳐 이번

사업에 뛰어들었다.

평소 일식을 좋아하는 이들은 일본식 캐주얼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6개월간 소스개발 및 돼지고기 부위 선택 등 메뉴개발 연구에 몰두했다. 첫 창업인 만큼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추진단의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아, 육수부터 소스까지 직접 만들고 원주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구성했다.

박성일 군수는 "청년키움식당이 외식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완주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지난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창업랩(LAB)실과 연계해 농식품 분야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청년키움식당에는 총 4차 참가팀(22명)이 수료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충북 제천시의회 벤치마킹 다녀가

충북 제천시의회와 교통복지 1번지 완주군을 방문했다.

완주군은 지난 4일 제천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직원 26명이 완주군을 방문해 교통복지 활성화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벤치마킹을 통해 제천시는 완주군의 행복콜버스, 마을버스 등 맞춤형 버스 분야, 으뜸택시, 통학택시 등 맞춤형 택시분야에 대한 도입배경, 운영현황, 금후 추진계획 및 '부릉부릉~' 교통브랜드 구축 등 현재 추진 중인 완주군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은 2017년도 대중교통시책평가 군단위 1위를 달성했으며, 특히 전북도에서 공모해 완주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콜버스(DRT) 사업은 대중교통체계 개선의

한축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눈여겨보고 있다.

실제, 제천시 뿐만 아니라 이미 제주시, 밀양시, 진주시, 구미시, 오진군 등 많은 지자체들이 완주군을 방문해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홍석용 제천시의회의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교통복지 정책 중 제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 제천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완주군은 행복콜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정책에 더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